

제1부 이론·사상 시각

제1장

네트워크 국가론:

미래 세계정치 연구의 이론적 기초

김상배(서울대학교)

I. 머리말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이들의 영향력이 국가 행위자들의 기성 권력에 도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자본,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나 글로벌 시민 사회 네트워크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싱크탱크와 지식 네트워크, 국제문화교류의 네트워크, 이민자 네트워크 등의 활동도 부쩍 눈에 띈다. 국가 수준을 넘어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등의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초국적 네트워크들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정보통신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힘입어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국가 행위자들이 단순히 물러난 것은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팽창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안보 위협과 시스템 불안에 대응하여 국제적 공조를 펼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미-중-일-러로 대변되는 강대국들이 나서서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주도해 왔던 지구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내정치가 보수화 및 권위주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 보호를 추구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의 통상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지정학(geopolitics)의 부활’이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미래 세계정치에서도 국가 행위자는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래의 국가는 예전의 근대 국제정치에서 군림했던 국민국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미래 국가모델로서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에 대한 논의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은, 한편으로 국가가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적절하게 국내의 하위 단위체에게 분산·이전시킴으로써 그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 주어지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국적 차원의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들의 권력게임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고전)지정학적 시각에서 본 물질적 자원권력의 구축이 중요하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정치의 메커니즘을 적시해야 한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과 같은 비물질적 권력자원의 중요성이 커졌다.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권력이나 제도적 권력,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며, 더 나아가 가치관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적 권력도 만만치 않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국가가 벌이는 권력게임은 행위자 자체의 속성보다는 이들이 몸담고 있는 네트워크의 맥락에 기대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전개되는 미래 세계정치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연구대상이었던 국민국가들 간의 정치, 즉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의 반경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래 세계정치는 네트워크들 간의 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로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들 간의 망제정치는 국가 행위자뿐

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경합하는 모습으로 전개된다. 게다가 이러한 경합의 이면에는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하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있다. 부연컨대, 기존의 국제정치가 국가라는 노드 행위자들 간의 ‘점대점(點對點) 정치’였다면, 미래 세계정치는 다양한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의 ‘망대망(網對網) 정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망제정치에는 행위자의 성격이나 네트워크의 구성원리와 작동방식 등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상이한 네트워크들이 경합한다. 게다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네트워크 경합은 ‘단일 종목’의 경기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경합을 벌이는, 올림픽 게임과도 같은, ‘종합 경기’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과 협력을 분별하기 어렵고,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힘든 일종의 ‘비대칭 망제정치’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정치의 구조변동은 기존 이론이 상정했던 바와 같이 ‘세력전이’의 단순한 형태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강대국들이 벌이는 패권경쟁의 양상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론바 복잡계 환경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망제정치의 현상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이 설정하고 있던 이론적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다. 따라서 세계정치의 미래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기존 주류 국제정치이론인 현실주의의 기본가정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들이 벌이는 자원권력의 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무정부 질서(anarchy)에 대한 이론적 가정에만 입각해서는 더 이상 오늘날의 세계정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20세기 초엽에 그 진용을 갖춘 현대 국제정치학의 렌즈만으로는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과 이

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권력게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네트워크 질서로 대변되는 변화의 실체를 또렷이 파악할 수 없음은 오히려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펼쳤다. 특히 기존 이론이 설정했던 국가와 권력 및 질서에 대한 가정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글이 새로이 원용한 것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이다.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원용하는 작업은 글로벌 차원의 보편성을 품으면서도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강대국이 처한 세계정치의 현실과 전략의 지평을 넘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모색할 실천적 문제의식을 담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네트워크 국가론의 이론적 배경과 구성 및 과제 등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해서 진행할 21세기 세계정치 연구의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했다.

II. 네트워크 시각의 이론적 도전

1.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이 보여주는 현란함에 비해서 기존 국제정치 이론들의 대응은 다소 무디게 나타나고 있다(김상배 2008; Kahler ed. 2009; 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Goddard 2009; Maoz 2010; 김상배 2014). 기존의 국제정치 연구는 주요 행위자로서 국민국가 간의 양자 또는 다자 관계를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

다. 네트워크 이론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들이 관심을 둔 연구대상은 주로 국민국가를 노드로 하는 ‘노드 간의 정치(inter-nodal politics)’였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더라도 그 이론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지 못했다. 이러한 이론의 빈곤이 발생한 이유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라는 노드 행위자에 기반을 둔 이론이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전형적으로 노드의 발상에 기반을 둔 ‘행위자 기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지배적 행위자로서 국가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는 무정부 질서의 국제정치 상을 상정한다(Morgenthau 1948).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국가 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은 현실주의의 주요 관심사이다. 세력균형이란 언뜻 보기에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위자 차원으로 환원되는 노드의 속성이나 보유자원 기반의 발상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도 노드들 간의 물질적 권력의 분포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조(structure)’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력균형의 발상에 머물고 있다(Waltz 1979).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현실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정 기반 이론’의 유연한 발상을 드러냈다. 자유주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 이외에도 비국가 행위자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다원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협력함으로써 창출되는 협력과 제도형성의 과정을 중시한다(Keohane and Nye 1977). 그러나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를 여전히 논의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노드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이 아닌 관계적 맥락에서 우러나오는 권력에 관심을 둔다(Nye 2004). 또한 국제레짐 또

는 국제제도가 중요해지고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갖게 되는 차원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탈노드적 면모를 보여주었다(Keohane 1984; 2002).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도 관념(idea) 변수에 의해서 이익(interest) 변수가 구성되는 국제정치의 일 단면을 밝혀내려 하지만, 그 기본 단위는 여전히 국가 행위자이다(Wendt 1999). 구성주의가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국가 행위자라는 노드에 시각을 고정한 신현실주의의 물(沒) 사회이론으로의 문제점을 이론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보니까 생겨난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웬트의 유명한 문구인 ‘무정부 질서란 국가들이 만드는 것(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을 연상하면 되겠다(Wendt 199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가 지니는 잠재력은 행위자 간의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상호작용에 의해서, 즉 노드 간의 ‘링크(link)’의 양상에 의해서 노드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렇듯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 진영을 이루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전히 노드의 시각에 머무르는 한계를 안고 있다. 노드에 고착된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간간히 엿보이지만, 여전히 부분적이거나 또는 암묵적인 차원에서만 탈노드적 시각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드의 물질적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면적인 세력균형의 발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간혹 소프트 파워의 메커니즘이나 국제정치에서 관념 변수의 역할을 논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노드로서의 국가 행위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평면적 관계에 시야가 고정될 수밖에 없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기존의 주류 이론에 비해서 일찍부터 ‘구조 기반 이론’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세계체제론은

근대 자본주의체제라는 체제 수준의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그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개별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Wallerstein 1980; 1995). 그러나 세계체제론이 탈노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내의 노드 간 관계를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아키텍처’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체제론의 체제 수준의 발상은 여전히 단순계의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복잡계에 기반을 둔 본격적인 네트워크 발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제정치의 작동메커니즘에 대한 세계체제론의 발상은 물질적 자원으로서 이해되는 자본이라는 물질적 권력자원에 머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복합 프레임 개발의 과제

행위자와 구조 및 과정의 어느 하나에 분석적 우선성을 두는 기존 이론들과는 달리, 네트워크의 시각을 원용하는 논의의 장점은 이들 세 차원을 모두 하나의 이론적 구도 안에 품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국민국가라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연구주제를 프레임했다면, 네트워크 시각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들끼리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구조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연구주제를 프레임하는 복합적 시도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복합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위자와 구조 및 과정의 변환을 연극의 ‘배우’와 ‘무대’ 및 ‘연기’의 변환에 비유해서 살펴보자(하영선 2007; 김상배 2014, 제3장).

첫째, 21세기 연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연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와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둘러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주연배우의 연기가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이 아니라 주연급 조연배우의 역할이나 엑스트라의 동원 규모, 그리고 이들 간의 역할 배분 등이 모두 오늘날 연극에서는 흥미로운 볼거리이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연극에 출현하는 배우 그 자체의 역할만큼이나 ‘배역’의 캐스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우와 연기의 복합론은 세계정치에서 발생하는 행위자와 권력정치의 복합성에도 적용 가능하다. 제3장 (이 글의 3절 III. 네트워크로 보는 미래 세계정치???)에서 다른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 중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탐구하며, 이러한 과정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21세기 연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대의 앞뿐만 아니라 무대의 뒤, 즉 ‘구조’를 포괄적으로 보는 입체적 안목이 필요하다. 무대 앞에서 벌어지는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제공되는 작가의 대본, 감독의 연출, 그 밖에 배우와 무대를 연결하는 제작진의 다양한 기술, 더 나아가 극단주가 발휘하는 수완까지도 연극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는 구조를 밝히는 것인 동시에 행위자-구조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무대의 뒤를 배려하고 무대 앞과 뒤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3절에서 언급하다시피,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 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네트워크 흐름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은 막연하게만 떠올리던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그려내는 힘이 있다. 그 네트워크 속에서 어느 노드가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행위자-구조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끝으로, 구조에 대한 관심을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무대의 위와 무

대의 밑/밖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최근 무대와 객석의 오프라인 교감뿐만 아니라, 관객과 비평가들의 온라인 품평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연극이라는 범주 안의 주체들(주연-조연-엑스트라-감독-작가-제작진)과 그 밖의 객체들(관객-인터넷-비평가)의 복합이다. 예전에는 이들을 따로 분리된 존재로 간주하고 주체로부터 객체로 일방적 흐름만을 논했다면, 이제는 이들 간의 쌍방향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연극의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최근 벌어지는 세계정치의 변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부구조’로서 세계정치의 변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적 토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물적 토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의 변수를 더 이상 블랙박스 안에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 제3절에서 다룬,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시각은 세계정치 행위자의 변환과 그 기저의 물적·지적 조건이 벌이는 구성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컨대, 행위자와 구조를 아우르는 이론화의 문제는 기존 국제정치이론 진영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과제였다. 네트워크 시각은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에서 지적되었던 이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네트워크 이론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장점은 행위자와 구조, 그리고 과정을 아우르는 이론의 개발에 활용될 충분한 소지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제3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개념을 행위자인 동시에 구조와 과정으로 보는 복합적 접근은, 한편으로는 구조의 속성으로부터 행위자의 역할이 추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자의 전략으로부터 구조의 패턴이 형성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동태적 과정에 대한 분석틀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유용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네트워크 시각의 유용성

우선, 네트워크 시각을 국제정치학에 원용하는 작업의 장점 중의 하나는 행위자들이 관계 맺기를 하는 구체적인 네트워킹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논리를 따라서 발생하는 권력게임에서 어떤 행위자는 성공적으로 네트워크를 치고, 어떤 행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차이를 이해하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인간 행위자들이 주위의 인간 및 비인간(non-human) 행위자들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지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가인 미셸 칼롱의 논의는, 막연하게만 떠올렸던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다(Callon 1986). 칼롱이 제시하고, 김상배(2014)가 외교전략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작한, 네트워크 전략의 네 단계에 대한 논의, 즉 프레임 짜기, 맺고 끊기, 내편 모으기, 표준 세우기는 네트워크 국가가 펼치는 전략을 이해하는 분석틀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시각을 원용하는 작업의 유용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드러내는 데서도 발견된다. 사실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는 것은 추상 개념이어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이론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이 구조를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하는 관계의 구도로 이해하면 이를 가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사용하는 사회연결망분석(SNA)은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소시오그램을 그림으로써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패턴화된 관계의 구도를 보여준다. 물론

SNA는 데이터의 가용성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현실의 네트워크 전체보다는 어느 일부분만을 그려내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국제정치학에서 추상적으로만 상상하던 보이지 않는 관계의 패턴을 직접 보여주는 힘이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시각의 유용성은 세계정치의 물적·지적 조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는다는 데 있다. 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분석에 있어서 정보통신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수를 독립변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문제와 관련된다. 사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정치변환의 기저에는 이른바 ICT변수, 즉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창출하는 디지털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국제정치이론은 이러한 ICT변수를 외재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이론화의 일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네트워크 조직 이론의 정보주의(informationalism)에 대한 논의(Castells 2004)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비인간 행위자에 대한 논의는 세계정치의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층위, 즉 세계정치라는 ‘상부구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그 ‘물적 토대’에 해당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층위를 엮어서 보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요컨대, 네트워크 시각은 기존 국제정치이론에서 난제로 여겨졌던 ‘행위자-과정-구조의 복합 프레임’ 개발의 단초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3절에서 설명할, 네트워크의 개념 그 자체가 복합 프레임을 모두 엮는 일종의 ‘메타 프레임’의 기능을 한다. 네트워크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국제정치 분야의 고유한 특수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문제의식의 필요성이다. 물리학이나 사회학과 달리 국제정치학에

서는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만큼이나 국가라는 행위자들이 보유한 속성과 자원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네트워크의 개념을 권력이나 국가, 구조(또는 질서)와 같은 기존 국제정치학의 개념들과 접맥하려는 시도를 펼쳤다.

III. 네트워크로 보는 미래 세계정치

1. 네트워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이 제안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보는 ‘잣대’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이다(Castells 2004). 말을 바꾸면,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만드는 관계이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러한 노드들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관계는 어쩌다 한두 번 마주치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 규칙적인 만남이 있는 관계이다. 그 관계는 노드들이 서로 뗄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노드들이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느슨한 관계이다. 이런 관계들은 필요할 때 급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미 구축해 놓고 있어야 한다. 느닷없이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상시적 교류가 있는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그 용도가 이미 지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평상시에는 잠재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 활성화되는 종류의 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부르는 관계의 쉬운 사례로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단순히 이런 관계의 존재를 넘어서, 특정한 ‘패턴’을 지닌 관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라고 말할 때는,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어서 구성되는, 다른 형태의 사회조직과 구별되는 독특한 패턴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계의 아키텍처라는 면에서 네트워크란 수직질서와 수평질서의 중간에 설정된다. 네트워크로 설정되는 관계의 아키텍처는 위계질서(hierarchy)처럼 수직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시장질서나 무정부질서(anarchy)처럼 완전 수평적이지도 않다. 한편 관계의 작동방식이라는 면에서도 네트워크는 집중 방식과 분산 방식의 중간에 설정된다. 네트워크는 완전히 집중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완전히 분산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다른 노드들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노드, 즉 허브(hub)가 존재하고 그 허브가 다른 노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즉 중심성(centrality)을 행사하는 복합적인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란 단순한 위계질서와 집중 방식의 조합을 한편으로 하고, 단순한 시장질서와 분산 방식의 조합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스펙트럼의 중간지대에 설정할 수 있는 복합적인 패턴의 관계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네트워크의 개념적 외연을 구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개념적 내포를 밝히는 데는 미흡하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나타나는 너무 많은 관계들을 네트워크라는 말 안에서 뭉뚱그리게 된다. 네트워크의 개념을 현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은유의 차원에서 쓸 수 있을지언정,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관계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인 개념으로 쓸 수가 없다. 네트워크 개념을 분석적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그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의 상이한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유형에 대한 좀 더 정교한 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네트워크의 하위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김상배 2014, 제2장).

네트워크의 개념을 은유의 차원을 넘어서 분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네트워크라는 말은 개념적 혼란의 여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는 어느 단일한 실체가 아닌 여러 가지 중첩된 존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네트워크는 그 개념적 외연과 내포가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인 용어이다. 간혹 모든 것을 다 네트워크로 설명하려는 ‘개념적 확장(conceptual stretching)’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네트워크의 개념을 행위자들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은유나 묘사의 차원을 넘어서 분석의 도구나 해석의 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으로 네트워크를 논하는 개념적 층위를 구별해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네트워크 이론은 그 인식론이나 방법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가지가 아니고 매우 다양하다.

2. 세 가지 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들은 각기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개념적 층위가 조금씩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각도에서 관찰하느냐가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는 변수가 된다. 다시 말해 분석적 층위를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라는 존재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 주는 의미도 염두에 두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학, 물리학, 역사학(주로 과학사) 등에서 다루어 온 네트워크의 개념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

한 구분은 인식론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행위자와 구조 및 과정의 구분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논의가 국제정치학과 인연을 맺게 된 연구사의 변천과도 어느 정도 맥이 닿는다(김상배 2014, 제1장).

첫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actor)로 보는 이론이다.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이다. 네트워크는 특정한 속성, 즉 위계 조직 모델도 아니고 경쟁시장 모델도 아닌 속성을 지닌 주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네트워크는 특정한 경계를 갖는 노드와 링크의 집합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그 자체가 분석의 단위이자 행위의 단위이다. 노드라는 단위 차원보다는 한 차원 위에서 노드와 노드,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링크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네트워크를 본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보는 이론 진영의 대표 격은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의 조직이론에서 원용하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network organization theory)이다. 이들 이론의 전제는, 이른바 ‘개방체계(open system)’로 파악되는 네트워크 형태의 사회조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였지만,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Castells 1996).

둘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동태적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어느 노드가 그 주위의 다른 노드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부단한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과정으로 파악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행위자와 구조로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드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자기조직화’의 과정이다. 과학기술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원용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은 이러한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ANT에 의하면 과정으로서 네트워크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물질적 환경에 해당하는 비인간(non-human) 행위자

들까지도 참여하는 과정, 즉 ANT의 용어로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이다. ANT에서 행위자란 노드와 같이 개체론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고, 오히려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이다(Latour 2005).

끝으로,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structure)로 보는 이론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노드로서의 중견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구조이다. 네트워크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단위로서 노드들의 활동조건들이 달라진다. 네트워크는 노드들의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노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이다. 소셜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은 네트워크를 일종의 구조로 보고 그 특징을 밝히거나,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은 구조로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도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Wellman and Berkowitz 1988).

3. 네트워크로 보는 미래 세계정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자이자 과정이면서 동시에 구조인 복합적인 존재로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시각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에 맞게 기존 국제정치이론을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특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정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은 주로 노드의 관점에서 이론화를 전개하고 있는 기존 이론의 편향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데 기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네트워크 이

론은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에서 주로 근대 국민국가 행위자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던 주요 논제들, 예를 들어 국가, 권력, 구조 등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다(Waltz 1979).

첫째, 네트워크 조직 이론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행위자의 개념은 국민국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전제를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주권과 영토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은,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국민국가가 그 경계의 안과 밖으로 변환되면서, 그 역할과 형태가 변화하는 ‘개방체계(open system)’로서의 새로운 국가의 부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또한 국가 그 자체도 더 이상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위계조직이 아니며, 국가기구 내의 여러 하위 행위자들의 수평적 관계가 활발해지는 개방형 조직형태로 변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네트워크 시각에서 주목하는 국가는 ‘네트워크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전략은 자원권력의 추구를 기본적인 전략 게임으로 보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전제를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국제정치이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권력 개념은 주로 행위자의 속성론이나 자원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의 핵심 노드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 특히 부국강병을 보장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권력 개념은 이렇게 파악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어야 하는 새로운 면모를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주목하는 권력은 노드로서의 국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비롯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노드와 노드들이 맺는 관계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생성되는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은 주로 네트워크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통칭하여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고 부를 수 있다.

끝으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 제시하는 구조의 개념은 신현실주의의 고정적 구조 개념을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하는 국제체제에서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말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구조를 이렇게 거시적 구조로만 보는 것은 제한적이다. 자원권력 게임의 양상을 넘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신현실주의가 말하는 세력분포로서의 ‘구조’나 또는 세계체제론이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같은 지정학적 구조라는 관점에서만 ‘구조’를 이해할 수는 없다.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기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하는 관계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 제시하는 구조는, 자원권력의 분포라는 맥락에서 이해된 세력균형의 구조라기보다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relational configuration)라는 맥락에서 본 세력망(勢力網, network of power, NoP)으로 개념화된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국가와 권력 및 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근대 국제정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기본

가정, 즉 국가 중심의 가정, 권력추구의 가정, 무정부 질서의 가정 등에 대한 비판의 작업을 수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글은 현실주의의 세 가지 기본가정을 폐기하기보다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정치 변화에 걸맞게 수정·보완하여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권력, 네트워크 질서의 세 가지 가정을 새로이 제시하는 시각을 취하였다.

IV. 네트워크 국가론의 이론적 구성

1. 국민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지구화와 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국민국가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자, 즉 적자(適者)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의 능력을 갖고 정보와 지식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행위자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초국적 네트워크 형태로 작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 국가 행위자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대체되어 완전히 도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무리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부상하고 이에 따른 복합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국가는 사라지지 않고 역할과 형태의 변환을 겪으면서도 미래 세계정치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의 고유 영역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초국적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공익 보장

의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세계정치의 변화는 국가의 소멸보다는 부단한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로 국가의 형태가 변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국가가 그 경계의 안과 밖에서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환을 겪는 가운데 출현하는 ‘네트워크 국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네트워크 국가란 대내적으로는 위계적 관료국가, 대외적으로는 영토적 국민국가의 모습을 하는 기존의 국가모델이 지구화와 정보화 및 네트워크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자기변화와 조정을 해나가는 국가이다. 네트워크 국가의 부상은, 한편으로 국가가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적절하게 국내의 하위 단위체에게 분산·이전시킴으로써 그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 주어지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이고 지역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국적 차원의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Carnoy and Castells 2001; Ansell and Weber 1999; Ansell 2000; 하영선·김상배 편 2006; 김상배 2014, 제6장).

네트워크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몇 가지 층위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학 차원에서 본 정부-기업 관계의 재조정, 정치사회학적 차원에서 본 지배 엘리트 연합과 관료제의 변환, 정치·행정학적 차원에서 본 중앙-지방 관계(국가연합 또는 연방 등)의 재정비 등으로 나타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사안을 놓고 공조하는 정부 간 협의체(예를 들어, G20),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공간지리적인 차원에서 영토국가의 단위를 넘어서 지역 차원에서 형성되는 지역통합체의 부상 등과 같은 형태를 띤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의 출현은 국가별 또는 지역

별로 그 진행 속도와 발현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국가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할은 중심성의 제공이다. 쉽게 말해, 이러한 중심성의 제공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개자(broker)로서의 역할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의 중개자 역할은 밥 제습이 주장하는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Jessop 2003). 메타 거버넌스는 다양한 거버넌스 메커니즘들 사이에서 상대적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관리양식을 의미한다. 제습에 의하면, 시장의 무정부질서(anarchy), 국가통제의 위계질서(hierarchy), ‘거버넌스’의 다층질서(heterarchy) 중 어느 하나의 메커니즘만으로는 권력관계의 완전한 균형과 이익의 형평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회체계의 복잡성, 구조적 모순, 전략적 딜레마, 양면적인 목표의 존재 등으로 인해서 시장 메커니즘이나 국가통제 또는 거버넌스의 자기조직화에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Ansell 2000, 309).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버넌스의 거버넌스(the governance of governance)’로서 메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습에 의하면, 새로운 거버넌스를 행하는 국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장을 마련하고, 상이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호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공동체 내에서 대화와 토론 형성의 조직자 역할을 담당하고, 정보와 첩보를 상대적으로 독점하며, 거버넌스 관련 분쟁을 호소하는 장을 제공하고, 시스템 통합과 사회적 응집을 목적으로 권력격차의 심화를 조정하고, 개인과 집단 행위

자의 정체성·전략적 능력·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거버넌스가 실패하는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등의 메타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Jessop 2003, 242-243). 메타 거버넌스는 국가가 사안에 따라 그 개입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동시에 운용하는 관리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메타 거버넌스는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환경 속에서 네트워크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2. 자원권력에서 네트워크 권력으로

오늘날 세계정치에서는 기존의 자원권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의 부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주로 경제적 상호의존, 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 보건·질병, 바이오, 식량, 이주·난민, 인권, 개발협력,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영역에서 관찰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권력게임이 기존의 국제정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들 분야의 권력은 행위자들이 보유한 자원이나 속성보다는 행위자들이 벌이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작동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자원권력에 의지하는 게임이 아니라, 기술·정보·지식·문화·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동하는 권력, 즉 ‘네트워크 권력’ 게임의 양상이 나타난다.

네트워크 권력이란 행위자들 간에 형성되는 관계 또는 이러한 관계들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 네트워크 전체를 창출하고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네

트위크 권력의 개념이 지니는 의미는 행위자의 내재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권력과 행위자 밖의 구조적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권력을 복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데서 발견된다. 또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노드 행위자들이 서로 위협하고 강제하는 권력 행사방식을 넘어서, 밀접한 상호의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권력의 행사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권력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협력하면서도 권력을 행사하려는 권력게임의 복합 현상을 드러내 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특성은 새로운 권력 환경으로 설정한 네트워크 공간이 제로섬 게임의 공간인 동시에 비(非)제로섬 게임의 공간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김상배 2014, 제5장).

이러한 개념적 복잡성을 분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은 행위자와 과정, 그리고 구조 차원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네트워크 권력의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가장 쉽게 이해하면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은 네트워크를 구성한 노드들의 집합인 행위자가 발휘하는 집합권력(collective power)이다. 둘째, 네트워크 권력은 특정 노드 또는 노드군(群)이 네트워크상에서 어느 특정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발휘하는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권력은 주로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노드와 노드 또는 군집과 군집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발휘된다는 점에서 중개권력(brokerage power)과도 통한다. 끝으로, 네트워크 권력은, 행위자와 구조를 구별하기 힘든 네트워크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행위자와 구조를 모두 포괄하는 체제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즉 네트워크 권력은 체제로서의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은 다양한 노드들을 조정함으로써 상호작용성과 호환성 및 정체성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표준설정의 메커니즘을 연상시킨다(Grewal 2008, 97).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나 화폐, 법률과 문화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준은 이질적인 성격의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케 하는 조정기능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의 조정기능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권력현상을 수반한다. 이러한 표준설정의 권력은 어느 노드가 물질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생겨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 권력은 빈약하더라도 노드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드가 표준설정의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표준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권력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글은 네트워크 권력정치의 사례로서 세 가지 차원의 표준경쟁에 주목한다. 우선, 표준경쟁은 주로 기술과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형태를 띤다. 기술의 관점에서 본 표준경쟁이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성과 호환성을 돕는 규칙이나 기준, 즉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벌이는 ‘기술표준경쟁’이다. 둘째, 표준경쟁을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만 논하라는 법은 없다. 실제로 언어나 화폐, 정책과 제도, 규범, 법률과 문화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표준경쟁’의 양상이 나타난다. 제도표준경쟁은 이른바 ‘제도모델’의 표준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끝으로, 가장 추상적인 의미에서 표준경쟁은, 기술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생각과 담론, 더 나아가 이념과 가치관 등의 표준을 놓고 벌이는 경쟁, 통칭해서 ‘담론표준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권력을 놓고 벌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게임은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된 복합적인 표준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세력전이에서 세력망 재편으로

국제정치학에서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개념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제정치 이론가들마다 각기 의견을 달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은 암묵적으로 ‘행위자들의 내적 속성(categorical attributes)’으로부터 도출되는 실체’로서 ‘구조’를 이해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구조는 무정부 질서의 조건이나 권력의 상대적 분포, 또는 규제적이고 구성적인 규범이나 제도의 집합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개념화가 지니는 특징이자 단점은 국제정치에서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를, 행위자들이 벌이는 상호작용의 관계적 맥락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내적 속성이라는 단위 수준으로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속성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을 논하면서도 정작 행위자의 상호작용 그 자체와는 유리된 그 무엇으로 구조를 파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Nexon 2009, 24).

마찬가지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구조 개념도 유사한 비판을 받았다. 신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세력분포와 세력균형의 시각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를 단극-양극-다극체제 등으로 대별해서 파악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현실주의 개념은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구조’의 전반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데에는 유용한 반면, 기본적으로 구조의 개념을 행위자가 보유한 자원이나 속성의 차원으로 환원시켜서

파악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현실주의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가 선택하는 전략과 국제정치의 구조 사이에서 형성되는 구체적 상관관계나 행위자-구조 간의 동태적 변화를 밝혀내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신현실주의 시각에 기반을 두는 구조변동에 대한 논의로서 세력전이론도 단순계에서의 자원권력 게임과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자원권력의 중심이동, 즉 전이(transition)를 논한다(Organski and Kugler 1980).

이에 비해 소셜 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관계적 구도(relational configuration)’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Nexon and Wright 2007; Nexon 2009). 다시 말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관계적 구도, 즉 네트워크 그 자체를 구조로 보는 것이다(Wellman and Berkowitz 1988).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구조의 개념을 국제정치 분야에 도입하면, 구조의 개념을 단위 수준으로 환원하지 않고도,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패턴으로부터 국제정치의 구조를 개념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조의 개념을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또는 이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신현실주의가 논하는 거시적 구조의 개념에 대비해서 볼 때 일종의 ‘중범위(meso)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중범위에서 파악된 구조의 개념은 거시적 구조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행위자의 선택과 상호작용하는 구조의 변화를 탄력성 있게 담아내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개념화는 국가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자원권력 전략의 맥

락에서 이해하던 기존의 세력균형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었다. 사실 세력균형에 대한 논의는 행위자 차원에서 벌어지는 자원권력 게임을 국제정치의 구조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인 것이 맞다. 그러나 세력균형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구조의 논의를 담지 못하고, 구조 그 자체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할 대부분의 문제를 행위자 차원, 즉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으로 환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구조' 개념에 대해서 가해진 비판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자원권력, 즉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한 자원에서 파악된 권력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면서 행위자와 구조의 차원에서 권력의 동학을 동시에 파악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관계구조'로서의 구조, 즉 세력망의 개념이 유용하다. 이러한 시각을 원용해서 보면 21세기 세계정치의 구조변동은 네트워크 권력을 기준으로 한 세력망의 재편(reconfiguration)으로 이해된다.

가장 추상적인 의미에서 네트워크 국가들이 구성하는 세계질서의 이미지는 기존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개념화하고 있는 무정부 질서(anarchy)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모습일 것이다. 네트워크 국가들이 구성하는 질서는 현실주의가 그리는 것처럼 무정부 질서의 국제체제도 아니고 세계체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상위 권위로서 군림하는 위계질서도 아니다. 또한 개인의 상위에 정부가 존재하는 국내사회와도 다르다. 네트워크 국가들이 구성하는 체제는 무정부 질서와 위계질서의 중간에 설정되는 '네트워크아키(networkarchy)' 또는 '네트워크 질서(network order)'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질서는 상이한 구성원리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질서가 복합된 질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국가 노드들이

벌이는 국제정치,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세계정치, 그리고 노드 행위자와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에 벌어지는 망제정치(網際政治)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질서일 가능성이 크다(김상배 2014, 제7장).

V. 네트워크 국가론의 이론적 과제

1. 네트워크 국가론의 이론적 위상

이상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국가론, 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이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논의 구도 속에서 지니는 의미와 위상은 무엇인가? 네트워크 국가론은 단지 새로운 분석틀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새로운 이론인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독자적인 사상적 기반까지도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특히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테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연속선상에서 가령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과 대칭되는 의미로 '네트워크주의(networkism)'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이론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설명체계, 즉 단선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좁은 의미의 단순계적 이론으로 정의한다면, 네트워크 국가론의 묘미는 오히려 이러한 이론의 정의를 극복하려는 데 있다. 만약에 이론의 의미를 독자적인 인간관과 세계관과 철학을 구비한 넓은 의미의 사상체계에까지 확장한다면, 네트워크

국가론은 기존의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또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도전해서 이를 대체하려는 거창한 사상체계를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국가론은 오랫동안 국제정치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위치를 차지했던 주류 이론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본성론에서부터 이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국가론의 지향점은, 단순한 분석틀의 개발을 넘어서, 좁은 의미의 이론과 넓은 의미에서 본 사상체계로서의 이론의 중간 지대에 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국가론은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엄격한 실증주의 사회과학 이외에도 이해와 해석을 중시하는 탈실증주의(post-positivist) 사회과학을 추구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탐구를 경험적인 작업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몇몇 비판이론처럼 인식론적 상대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현실은 ‘저기’ 있지만, 불충분한 정보나 인간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네트워크 국가론은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의 인식론을 원용함으로써, 단순계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인식론을 넘어서고자 시도한다. 다시 말해 고정된 노드와 노드들 간의 실재론적인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단순 인식론’을 넘어설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복합)네트워크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계의 발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네트워크는 미시적 수준에서는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인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구조’이며, 좀 더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 노드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상배 2014, 제3장).

복잡계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국가론은 세계정치의 동

학, 행위자, 정체성, 관련 이슈 등에 대한 이론적 주장을 펼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노드와 구조의 복합적 과정으로 파악되는 네트워크의 개념은 ‘실체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메타 개념’이다.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국가론은 기존 국제정치이론들이 지닌 개별 이론적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아우르는 인식론적 발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네트워크 국가론을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라도, 이는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또는 구성주의와 같은 층위의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이론을 메타이론의 시각에서 보완하는 ‘이론’이다.

특히 네트워크 국가론은 기존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메타이론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현실주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지향한다. 구성주의 이론가인 알렉산더 웬트가, 신현실주의 이론가인 케네쓰 월츠가 그의 저서에서 제목으로 제시했던, 국제정치의 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TIP)을 넘어서 ‘국제정치의 사회이론’(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STIP)을 제안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 글은 네트워크의 시각을 원용하여 ‘국제정치의 이론’과 ‘국제정치의 사회이론’을 넘어서 ‘세계정치의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NTWP)을 제시한다. 앞서 밝혔듯이 여기서 월츠나 웬트가 채택했던 ‘국제정치’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이 ‘세계정치’라는 말을 쓴 이유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도 참여해서 벌이는 복합적인 권력정치의 뉘앙스를 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이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기본가정을 수정·보완·발전시키는 시도를 펼쳤더라도, 이는 단순 네트워크의 발상에 머물고 있는 전통적인 버전의 현실주의보다는 복합 네트워크의 발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로운 버전의 ‘현실주의’이다.

2. 보편-특수의 이론적 과제

네트워크 국가론의 모색을 통해서 세계정치의 변환을 살펴본 이 글의 작업은 보편이론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사실 국내 학계는 물론이고 해외 학계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이 의도한 것은 동아시아 세계정치이론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남의 렌즈’가 아닌 ‘우리의 렌즈’로 읽어내려는 데 있다. 사실 여태까지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자들은 동아시아의 경험을 설명할 개념과 가설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과 같은 외래이론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데 주로 머물러 있었다. 서구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구별하지 않고 서구의 경험에서 기원한 보편이론을 동아시아의 특수현실에 적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좀 더 ‘현실적인’ 논의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동아시아 현실과 이론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특수이론으로의 치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혹시라도 보편이론이라는 명목하에 동아시아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경험적 현실에서 추상된 이론을 동아시아의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대국 차원에서는 ‘객관적 현실’로 인식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일지라도 동아시아에서 감지하는 ‘주관적 현실’로서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와는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현실에서 볼 때는 중심적인 문제이지만 보편이론의 틀 안에서는 주변적인 문제로 경시될 가능성도 있다(전재성 2011).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정확한

유용성을 파악하고, 이론들 간의 관계구도 속에서 동아시아 이론의 위치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동아시아 이론 진영 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이론이 기존 서구 이론을 다양하게 비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현실을 새롭게 설명하는 자체적인 분석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고 동아시아 이론의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글은 행위자와 구조 및 과정의 차원을 동시에 포괄하는 연구 주제들의 개발 필요성을 네트워크 권력과 네트워크 국가, 그리고 네트워크 질서 가정의 연속선상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원권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하던 세력균형을 넘어서 위치권력 또는 네트워크 권력을 추구하는 전략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되는 동아시아 세력망의 작동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국가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이 부상하는 ‘탈(脫)국제정치’의 메커니즘까지도 포괄하는 동아시아 네트워크 국가의 복합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근대 주권의 원칙에 기반을 둔 근대 국제질서의 비전을 넘어서 전통-근대-탈근대를 거치면서 복합적인 형태로 ‘변형된 주권’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주제들은 상호 분리된 개별 주제가 아니라 세 가지 측면에서 본 단일한 주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김상배 2014, 결론).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현실은 네트워크 세계정치 일반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아시아의 국가 행위자들은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도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촘촘히 네트워크를 치려는 ‘네트워크 전략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에서는 기존의 국가 행위자

들이 추구하는 네트워크와 새롭게 부상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간에 벌어지는 '네트워크 간의 경합'도 관찰된다. 지역질서의 차원에서도 동아시아에서는 근대적 주권원칙을 기반으로 한 무정부 질서의 요소가 존속되는 가운데, 지구화와 정보화로 인한 탈근대 질서의 부상과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주도하는 패권적 질서의 전망이 겹쳐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네트워크 간의 경합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노드의 국제정치'와 이를 넘어서려는 '탈(脫)노드의 세계정치'가 경합하는 망제정치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보편적 측면을 탐구하려는 노력과 함께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사례가 지닌 특수성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는 '협력의 게임'보다는 여전히 '경쟁의 게임'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비전이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보다 득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 세계정치를 보면 비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탈근대 현실이 기존 국제정치의 근대적 현실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새로이 부상하는 초국적 네트워크들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국가 행위자들의 힘이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토 분쟁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전히 냉전질서나 근대 국제질서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현실은 이 글이 현실주의 버전의 네트워크 국가론의 개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이 글이 '네트워크'라는 용어와 '권력'이라는 용어를 조합하여, 네트워크상에서의 비대칭적 관계에 포착하는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배경에는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포착하려는 의도가 은연중에

작용하였다. 게다가 행위자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여타 세계정치 행위자들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도 역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으로서 이 글이 '네트워크 국가'라는 '변화된 국가 행위자'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변환을 겪고 있는 주권원칙이나 여기서 비롯되는 복합질서의 형태도 모두 상대적으로 국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태에서 동아시아 세계정치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조컨대,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이 네트워크 국가론에 의거하여 동아시아의 사례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정향은 '현실주의적'이다.

3. 중견국의 실천이론 모색의 과제

분석이론의 차원에서 제기한 네트워크 국가론의 논의들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현실을 헤쳐 나가는 실천론의 문제로 연결된다.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과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 국가론은 얼마나 새로운 실천적 처방을 제시하는가? 현실주의자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르든지 동맹을 맺으라는 처방을 내릴 것이다.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은 국제기구나 국제레짐을 강화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구성주의가 제시하는 처방은 관념과 정체성의 공유를 강조할 것이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국가론이 제시하는 처방은 네트워크를 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이 네트워크를 치지 못하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행위자 자신의 모습이 네트워크를 닮아라는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것은 다양하고 다층적이다. 여러 가

지 복합적인 처방이 네트워크라는 한 마디 용어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를 추구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담고 서 있는 행위자 기반의 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시각을 노드 단위에 고착시키는 것과 그 노드들이 형성하는 관계, 즉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이러한 발상의 변환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위에 네트워크를 치는 새로운 권력게임을 벌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프레임을 짜고, 맷고 끊고, 내편을 모음으로써, 표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구하려면 그 자신부터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신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실천전략의 방도를 모색하는 이 글의 목적은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의 관점을 투영하는 데 있다. 사실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지금까지 강대국 중심으로 벌어지는 국제정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강대국 대 약소국, 혹은 약소국 대 약소국의 관계는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보면 크고 작은 행위자들의 설자리가 넓어진다. 거미줄이 복잡해지면 작은 행위자들도 거미줄 구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동시에 거미줄을 복합적으로 칠 수 있게 된다. 비록 행위자 자체의 규모와 능력은 크지 않더라도 주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약소국이나 중견국일지라도 나름대로 담당할 역할이 발생하게 된다.

새롭게 벌어지는 네트워크 권력의 게임도 역시 기존의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네트워크 권력게임 자체가 전통적인 자원권력의 게임에서 한계를 느낀 강대국(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게임규칙의 변경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성 권력의 정교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네트워크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자원권력이 풍부한 강대국뿐만 아니라 자원권력 면에서는 빈약한 비강대국들도 일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네트워크 환경이 지니고 있는 비(非)제로섬 게임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서 아무리 패권 세력이라도 모든 것을 석권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는 기존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뿐만 아니라 이에 도전하는 세력 모두에게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한국 같은 중견국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똑같은 네트워크 전략이라도 강대국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천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추구할 네트워크 전략의 핵심은 네트워크 외교전략, 네트워크 통일전략, 네트워크 지역전략의 삼중 구도로 요약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대한 다층적인 연결망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수자 연대의 모색 전략은 중견국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가 추구할 일차적인 방향이다. 또한 네트워크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처한 남북한 분단 상황과 통일의 과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처한 구조적인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주변의 4망(網), 즉 주위에 형성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빈틈을 파고드는 발상과 전략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물질적 힘으로 압도할 수 없는 중견국의 처지는 ‘실리외교’를 넘어서는 ‘규범외교’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게다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복합적인 현실은 중견국 한국으로 하여금 예전보다 좀 더 입체적인 중개의 전략을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세

기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해서 독자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고유한 존재론의 문제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천론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21세기 세계정치는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로 변환을 겪고 있다. 근대 국제정치를 주도해온 국가 행위자들의 다층적인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는 초국적 네트워크 형태의 행위자들이 새로이 세계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권력정치의 메커니즘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군사력과 경제력의 게임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근대 국제체제와 같은 노드 기반의 단순계의 시각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이 예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여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전제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 가지 가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네트워크 국가의 가정이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여전히 국가이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거미처럼 자신의 주위에 네트워크를 치는 새로운 국가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권력게임은 네트워크 국가의 새로운 전략을 엿보게 한다. 네트워크 국가의 전략은 세계정치의 관계적 맥락과 구조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입체적으로 활용한

다. 이러한 거미줄 치기의 전략은 권력게임의 변환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체의 변환도 야기한다. 21세기 세계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국민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변신을 겪고 있다. 21세기 국가는 그 기능적 성격과 존재적 형태 및 권력 메커니즘을 변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환의 이면에는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약진이 있다. 비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는 거미줄보다는 꿀벌들의 집짓기를 연상시킨다.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의 네트워크 권력게임도 거미보다는 꿀벌의 이야기에 친화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새로운 주체로서 네트워크 국가들이 벌이는 세계정치에서는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가 복합적으로 얹혀서 나타난다.

둘째, 네트워크 권력의 가정이다.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새로이 개념화된 세계정치의 권력게임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속성(즉 지정학적 위치나 영토의 크기 등)이나 보유자원(예를 들어 군사력이나 경제력 또는 각종 부존자원 등)을 기반으로 해서 행사되는 물질적 권력게임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권력게임은 세계정치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주위에 네트워크를 쳐나가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게임에서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전체를 설계하는 발상과 능력이 중요하다.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고 나면 싸우지 않고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짜인 네트워크 구도 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트워크 권력게임에서는 권력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핵심은 내편이 될 수 있는 행위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의 주위로 모아서 네트워크상에서 통용되는 '표준'을 세우는 것이다.

끝으로, 네트워크 질서의 가정이다. 네트워크 국가들이 네트워크 권력게임을 벌이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세계질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행위자와 구조 및 과정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이론의 취지를 살리려면, 기존 주류 이론처럼 세계질서에 대한 논의를 행위자 차원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국가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권력게임이라는 행위자 차원의 분석이 자동적으로 구조(또는 체제) 차원의 세계질서 분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또 하나의 과제는 행위자 수준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국가론을 행위자와 구조 수준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념화된 네트워크 질서의 모습은 노드형의 국민국가들이 만드는 단순계와 구별되는 일종의 복잡계이다. 이러한 복잡계의 질서는 무정부 질서도 아니고 위계질서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서 설정되는 네트워크 질서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질서는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들이 모두 합쳐지는 복합질서인 동시에, 서로 상이한 네트워크들이 중첩하여 새로운 구성원리를 생성하는 망중망의 질서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질서의 성격을 밝힘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서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네트워크들 각각의 구성원리를 밝히는 동시에 이들 다수의 네트워크들이 작동하는 과정을 관통해서 엮어내는 일종의 ‘메타 구성원리’를 밝히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향후 네트워크 국가론의 이론적 작업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계정치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계정치에 대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길은 추상적인 이론의 정교화 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

해서 이론적·경험적 지평을 계속 넓혀나가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네트워크 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례들이 앞서 언급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 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21세기 국제정치학계의 세계표준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세계정치’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 김상배. 2008.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48(4): 35-61.
- _____.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한울.
- 전재성. 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 2007. “세계정치의 변환과 한반도.”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을유문화사. 12-31.
- 하영선·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Ansell, Christopher K. 2000.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3): 303-333.
- Ansell, Christopher K. and Steven Weber. 1999. “Organizing International Politics: Sovereignty and Open System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 73-93.
- Callon, Michel.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John Law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233; 미셸 칼롱.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가리비와 생브리의 만(灣)의 어부들 길들이기.”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2010. 57-94.
- Carnoy, Martin, and Manuel Castells. 2001.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1-18.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 _____. 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3-48.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249-281.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3): 559-592.
- Jessop, Bob. 2003.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UK: Polity Press.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2002. *Power and Governance in a Partially Globalized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Latour, Bruno. 2005.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oz, Zeev.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genthau, Hans J. 1948.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 Nexon, Daniel.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xon, Daniel and Thomas Wright. 2007.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253-271.
- Nye,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Organski, A.F.K. and Jac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lerstein, Immanuel. 1980.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Academic Press.
- _____. 1995. *Historical Capitalism with Capitalist Civilization*. London: Verso.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Wellman, Barry and S.D. Berkowitz,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391-425.
- _____.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